



빈곤과 환경 : 악순환의 단절

우리가 살고있는 지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인간의 과도한 행위이다; 그것은, 탐욕이거나 탈취이며, 양자 모두 파괴적인 것이다.

만약 우리가 오래된 유럽의 숲을 찾거나, 라인강이나, 폴랜드의 Vistula의 물을 마시려 하고, 뉴욕항에서 수영을 하려 한다면, 또는 수십억 톤의 탄산가스가 발생할 지를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소비가 과도한 지는 너무도 명백하다. 이러한 것들은, 소비로 치닫는 사회의 과도한 행위이며, 전함 제조를 위한 철 제련과 농장, 그리고 도시의 길을 닦기 위해 나무가 벌목되는, 산업사회의 과도한 행위이다. 그리고 이는 공장에서 동물들이 한때는 그 물을 마셨던 강에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사회의 과도한 행위이다. 또한 동물들이 한때 물을 마시던 강에 쓰레기를 버리고 특히 가장 놀라운 일은 탄산가스와 그밖의 다른 가스로 인하여 지구 대기의 온실화를 가중시켜 지구 전체의 기후를 바꾸고 만년빙을 녹여 대양의 수위를 높인다.

그러나,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오늘을 살기위해, 내일 양식을 먹지 않으면 안되는, 또다른 양상이 있다. 그들은 정원을 만드는 경관속에 남아 있는 유일한 나무를 생존을 위해 잘라야만 한다. 그래서 홍수가 나고, 가뭄이 들거나, 홍수와 가뭄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한다. 세계은행이 산정한 바에 따르면, 지구의 50억 인구중에 11억이 빈곤 상태에 있다고 한다. 그들이 굶주린 이웃 이외에 그 어떠한 것도 없을때, 숲이 있고 코끼리가 사는곳을 파괴하리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Our Planet」의 이번판(版)은 물부족과 지구적인 산림벌채에서 살아나기 위한 개인적인 투쟁에 직면한 사례로 부터, 빈곤과 환경사이의 고리역할에 몰두하였다. 자원고갈을 무시하고, 설상가상으로, 한 국가의 풍요에 대한 댓가로 환경파괴(공해)와 같은 빈곤한 환경의 뒷으로부터, 몇몇 원인들을 지적했다. 이는, 빈곤과 환경사이의 모든 고리를 가로지르는 명확한 답은 아니다. 그러나, 시종일관 「Our Planet」의 이슈(목표)는 '지구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하지 않고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만일, 50억 인구가 모두 북아메리카와 같은 비율로 태운다면, 하루밤 사이에 연료의 고갈은 물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질식시킬 것이다. 만일, 우리가 모잠비크의 평균 성인이 섭취하는 하루 1608 칼로리만을 섭취한다면, (세계 보건기구는 최소한 하루 2600칼로리를 권장하고 있다.) 수백만이 죽거나 불가피하게 장기간에 걸쳐 잇따라 일어날, 비참한 자원전쟁내지는 기아선상에 빠질 것이다. 그러므로, 공평한 분배가 아니면, 우리는 멸망한다.